

PGA도 돌아왔다...세계랭킹 톱5 모두 출전

내일 찰스 슈와브 챌린지 개막
1~3위 매길로이·람·캡카 한조

페덱스컵 1위 임성재도 출격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3개월 만에 재개된다.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골프클럽(파70·7000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총상금 750만달러)가 열린다.

PGA 투어는 지난 3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 끝난 뒤 91일간 시즌 일정을 중단했다. 1942년 9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5일간 대회가 없었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이후로 PGA 투어 역대 가장 휴지기였다.

지난 12주 동안 발스파 챔피언십,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델 매치 플레이, 발레로 텍사스 오픈, 취리히 클래식, 웰스파코 챔피언십, AT&T 바이런 넬슨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찰스 슈와브 챌린지도 원래는 5월 21~24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3주 미뤘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등이 출전한 스킨스 게임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빙 릴리프', 타이거 우즈(미국)와 필 미켈슨(미국)이 대결한 '더 매치 - 챔피언십 포 채리티' 등 자신 이벤트 대회가 골프 팬들의 갈증을 달래줬다.

선수들도 대회를 애타게 기다려왔다. 찰스 슈와

브 챌린지는 메이저대회도 아니고 총상금도 많은 편이 아니지만,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대회인 만큼 스타들이 출출동한다.

세계랭킹 톱5 선수가 모두 출전하는데, 이 대회에 세계 5위 이내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는 건 골프 세계랭킹이 도입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세계랭킹 1위 매길로이와 2위 온 램(스페인), 3위 브룩스 켈카(미국)는 한 조로 묶였다. 매길로이는 이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다.

역시 이 대회에 처음 나서서 세계랭킹 4위 저스틴 토마스(미국)는 부진 탈출을 노리는 '절친' 조던 스피스(미국), 리키 파울러(미국)와 같은 조다.

세계랭킹 5위 더스틴 존슨(미국)은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브라이언 디셈보(미국)와 함께 플레이한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교포 케빈 나(미국)는 미켈슨, 게리 우들랜드(미국)와 한 조다.

올 시즌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는 임성재(22·세계랭킹 23위)도 출격한다. 임성재는 혼다 클래식에서 데뷔 첫 우승을 달성했을 때 호흡을 맞춘 캐디 앨빈 최와 다시 짝을 이뤄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는 각오다.

지난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이후 정규대회에 나서지 않은 골프황제 우즈는 이번 대회에도 불참한다.

이 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열린다. 대신 일부 선수들이 마이크를 차고 필드에 나서 팬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매길로이

CBS스포츠 손 맥매너스 회장은 일부 선수들이 마이크를 차는 데 동의했다며 이번 대회에 우즈-미켈슨의 '더 매치'를 이어 선수들이 마이크를 착용

하고 경기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를 달고 출전하는 선수들의 명단은 추후 발표된다. /연합뉴스

18일 개막 한국여자오픈 고진영·유소연 등 해외파 뜬다



고진영

김효주·김세영·이정은도 출사표
세계 20위 내 한국선수 5명 출전

오는 18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기아자동차 제34회 한국여자오픈에 전·현 세계랭킹 1위를 포함한 해외파가 집결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한국여자오픈에서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이 출전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 칸타타여자오픈에서 올해 처음 공식 대회에 모습을 드러냈던 고진영은 한국여자오픈을 두 번째 대회로 점찍었다.

롯데 칸타타여자오픈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과 준우승을 나누어 가진 김효주와 김세영도 출사표를 냈다. 이정은(24)은 국내 대회에 5차례 연속 출전한다.

전 세계랭킹 1위 유소연도 올 들어 처음 국내 대회에 나선다.

고진영과 유소연의 출전으로 전·현 세계랭킹 1위 대결이 성사됐으며 한국여자오픈은 세계랭킹 20위 이내 한국 선수 8명 가운데 5명이 출전하는 울스타전이 됐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선수 '만인 나' 지은희(34)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2012년 이 대회 챔피언인 이미림과 2007년 우승자 안선주도 합류하면서 2007년 이후 역대 챔피언 9명이 정상 복귀에 도전장을 냈다.

일본 여자프로골프 투어가 주된 무대인 이보미, 이민영, 배선우도 출전한다.

디펜딩 챔피언 이다연과 KLPGA투어 상금, 대상 포인트 1위 이소영을 비롯해 박현경, 임희정, 최혜진 등 상위 랭커도 출출동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팬 투표로 1, 2라운드에서 동반 경기를 펼칠 3개 조를 선정한다. /연합뉴스



유소연

장흥군체육회 '공공형축구클럽' 운영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선정
5년동안 총 4억원 지원받아

장흥군에서 '장흥 공공형축구클럽'이 운영된다. 전남도체육회는 "장흥군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2020년 학교연계형(한 종목) 스포츠클럽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은 지역 공공시설이나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되 회원의 50% 이상 청소년이 참여해야 하는 공공형 스포츠클럽 체계로 운영된다. 학교 자체에서 육성하는 운동부와 연계가 가능해 전문·생활체육을 아우르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장흥군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5년 동안 매년 8000만원, 총액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장흥 공공형축구클럽을 운영한다.

이 사업의 핵심시설은 지자체, 지역 교육청, 체육회가 힘을 모아 확보했다. 장흥군과 장흥교육지원청은 장흥공설운동장과 장흥중학교 운동장, 장흥중학교 클럽하우스를 각각 무상으로 임대해주기로 했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장흥군체육회의 한 종목 스포츠클럽 선정은 전남의 학교운동부가 지향해야 할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시체육회 규정 멋대로 개정 회장 이익 대변 어이없다"

국가대표 등 구성원 '태극회' 성명

광주·전남지역 출신 국가대표 등으로 구성된 태극회는 "일부 생활체육인들이 최초 민간 체육회를 혁명군 처럼 장악하고 기존 규정을 마음대로 개정하여 회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태극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체육을 평생 업으로 삼고 일생을 바쳤던 우리 체육인들은 정치 집단화한 일부 생활체육인들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금이야 어느 때인데 규정을 입맛에 맞게 고치고 회장의 기여금 6억원을 2억원으로 줄이고, 2억원도 기여금이 아니라 회장 자신의 업무추진비로만 쓰겠다는 저질적(?) 발상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체육은 정치 도구화되어서는 안된다"며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땀흘리는 어린 선수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장애와 꿈이 우리 체육인 선배들에게 달려 있다"며 자성을 주문했다.

태극회는 이어 "생활체육인 가운데도 순수한 스포츠 동호인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조용히 침묵하는 은퇴한 체육인 선배들이 나서기 전에 하루빨리 체육회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체육회를 떠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체육회 산하 자문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 회장 출연금을 2억원으로 줄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선 초대 회장부터는 첫 번째 정기총회 전일까지 출연금 2억원 이상을 본회에 출연해야 하며, 출연금은 회장 업무추진과 품위 유지를 위해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을 개정했다. 애초 사무규정에 의하면 김정중 회장은 임기 3년 동안 매년 2억원씩 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해야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월드컵경기장

전라권 거점

국민체육진흥센터 선정

문제부 공모 선정...연간 7억 투입 운영

광주 월드컵경기장이 전라권 거점 국민체육진흥센터로 선정됐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주시와 함께 공모한 문제부의 '체육진흥기금 공모'에서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서울권, 충남권, 경상권에 이어 4번째 체육진흥센터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연간 7억여원을 투입해 전라권 거점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운영한다. 국민체육진흥센터는 광주시체육회가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일부 공간으로, 시체육회는 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무상 제공한다.

국민체육진흥센터는 고가 체력측정 장비를 갖추고 운동처방사와 체력측정사 등 운영 인력 10여명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시체육회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체력인증센터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시민건강과 체력증진 등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운동처방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체육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신규 거점 체육진흥센터 공모를 진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2관 | 결백 |
| 3관 | 결백 |
| 4관 | 결백 |
| 5관 | 침입자 |
| 9관 | 침입자, 프랑스여자 |
| 7관 씨네커튼 | 에어노츠,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 영웅: 천하의 시작 |
| 8관 씨네커튼 | 위대한 쇼맨, 슈퍼스타 투루, 언더워터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 그집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최대주 感應動通
2020. 5.21.(목) ~ 6.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칠기방>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